

2023년 10월 2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9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20(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7장 1~13절(구약p.797)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10. 하나님의 입김이 열음을 열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둘게 하느니라
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금흙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뜻은 “겉으로는 위하여 주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해하고 헐뜯는 사람이 더 밍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욥과 엘리후의 상황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은 참으로 엘리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고난 당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자신이 보는 상황과 모습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지식과 논리, 교만함으로 상대방에게 거침없이 내

벨은 엘리후의 이러한 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길어지면서 논리적 허점과 교만함이 드러남도 봅니다. 분명 욥도, 앞서 말했던 친구들도 이러한 허점을 모두 알고 있는데, 엘리후 자신만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러한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비슷한 면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권면하고, 교훈할 때 나는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라.” 성도는 우리의 평소의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며 더욱 말하는 것을 삼가 조심하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더욱 조심하여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1.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 합니다. 다른 이와 소통할 때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음성언어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수어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비물질적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잠언 저자는, 잠언 13장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중언부언”이란 헬라어로는 “뱃돌로게오”인데 이는 “생각 없이 말하여 길게 재잘거리는 것,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며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자연현상에 대해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앞선 본문과 다르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메시지를 반복하기 위해 가져온 소재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즉 소재만 달라졌을 뿐, 욥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말만 길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보면 비슷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데, 단지 내 주관과 경험에 근거하여 무언가를 강요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베뢰아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그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한 주간은 더욱 들은 말씀대로 말만 많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나눌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할까요?

2. 억지사지의 자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 엘리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연현상에 대해 이토록 길게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니, 욥 당신에게 임한 고난도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 본인이 욥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과

연 아무런 의구심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 수 있었겠습니까? 막상 자신에게 큰 비극이 닥쳤다면, 옴에게 들려준 조언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겸손한 인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밀어내시고, 그 자리에 자신이 친히 대신 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려 죽으심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5:8). 그러니 성도는 이토록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은 실천하지 못할 조언을 쉽게 건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조심스럽게 헤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지 더욱 상고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말하기 훈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완전함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더욱 힘써 훈련하며 노력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도는 믿음의 말, 경건한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비난의 말, 불신앙의 말은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며, 기뻐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루도 그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40(통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폐 회 / 주기도문